

NEAR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결과발표 언론보도 스크랩

2019.11.26.(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경북연합일보	동북아청소년, 그림으로 문화교류 -경북도 NEAR 공모전 심사 러 예카테리나 양 '최우수상'	
2	신문	경상매일신문	동북아 4개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소통 -경북, NEAR 공모전 결과 발표	
3	신문	경안일보	道, '제7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결과 발표	
4	신문	세명일보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 교류 -최우수상, 러시아 톰스크주 아동예술학교 '에카테리나'	
5	신문	매일경북신문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6	신문	경북일일신문	경북도, 동북아지역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제7회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결과 발표	
7	신문	구미일보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8	인터넷	세계타임즈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9	인터넷	드림저널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10	인터넷	위클리오늘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11	인터넷	구미뉴스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12	인터넷	케이에스피뉴스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13	인터넷	뉴시스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 러시아 학생 최우수상	
14	인터넷	뉴스랩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 동북아 청소년, 그림으로 문화 교류

## 경북도 NEAR 공모전 심사 러 예카테리나 양 '최우수상'

경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2019년도 심사결과, 러시아 톰스크주(州) 아동 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몽골 읍스주(州)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쟁드아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 산 고급중학교 재학 가오 페이야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되어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의 의뢰



최우수상을 받은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

로 심사에 참여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돼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안동, 포항 시 소재 문화원 등에 전시할 예정이며, 국내 중·고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 동북아 4개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소통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최우수작품(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 경북도 제공

### 경북, NEAR 공모전 결과 발표

경북도는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올해 심사결과, 러시아 톰스크주(州) 아동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몽골 읍스주(州)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쉐드야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산 고급중학교 재학 가오페이야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돼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의 의뢰로 심사에 참여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돼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안동, 포항시 소재 문화원 등에 전시할 예정"이라며 "국내 중·고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동북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 道, '제7회 NEAR 청소년 그림 공모전' 결과 발표

### 러시아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 최우수상

경북도는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2019년도 심사결과, 러시아 톰스크주 아동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몽골 읍스주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첩드야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에,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산 고급 중학교 재학 가오 페이야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돼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의 의뢰로 심사에 참여했다.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bbo.com



최우수상인 러시아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 의 일부분

### 동북아시아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최우수상, 러시아 톰스크주 아동예술학교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경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심사결과, 러시아 톰스크주(州) 아동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몽골 읍스주(州)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첩드야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산 고급중학교 재학 가오 페이야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일본·한국·몽골·러시

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 중, 고교생들 작품 170점이 출품돼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돼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동북아시아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

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2019년도 심사결과, 러시아 톨스쿠주(州) 아동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몽골 읍스주(州)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쉐드야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산 고급중학교 재학 가오 페이아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되어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

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의 의뢰로 심사에 참여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되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안동, 포항시 소재 문화원 등에 전시할 예정이며, 국내 중·고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동북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기자

# 경북도, 동북아시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 제7회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결과 발표

경북도는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2019년도 심사결과, 러시아 톰스크주(州) 아동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몽골 울스주(州)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쟈드야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관산 고급중학교 재학 가오페이야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



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되어 각자의 기량을 겨

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의 의뢰로 심사에 참여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자 치 단 체 연합

(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되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안동, 포항시 소재 문화원 등에 전시할 예정이며, 국내 중·고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동북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 구미일보

##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 '제7회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결과 발표 -
- 최우수상에 러시아 톰스크주 아동예술학교 '키릴로바 예카테리나'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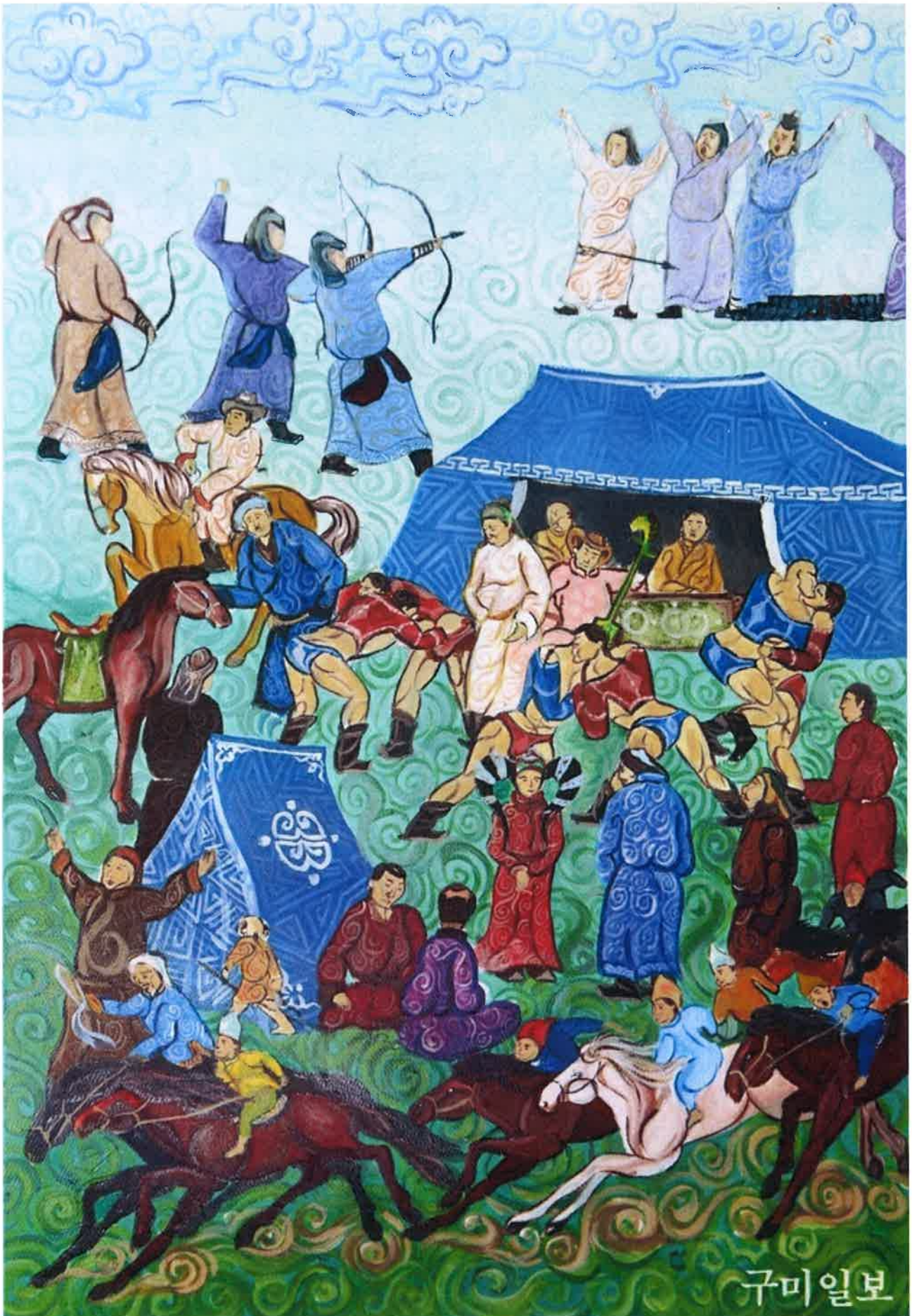
이윤정 기자 kgnews@hanmail.net

등록 2019.11.25 23:36:51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2019년도 심사결과, 러시아 톰스크주(州) 아동 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몽골 옅스주(州)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칭드야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산 고급중학교 재

학 가오 페이야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되어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의 의뢰로 심사에 참여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되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안동, 포항시 소재 문화원 등에 전시할 예정이며, 국내 중·고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동북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 저작권자 © 구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 '제7회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결과 발표 -
- 최우수상에 러시아 톰스크주 아동예술학교 '키릴로바 예카테리나'양 -

## [세계로컬핫뉴스]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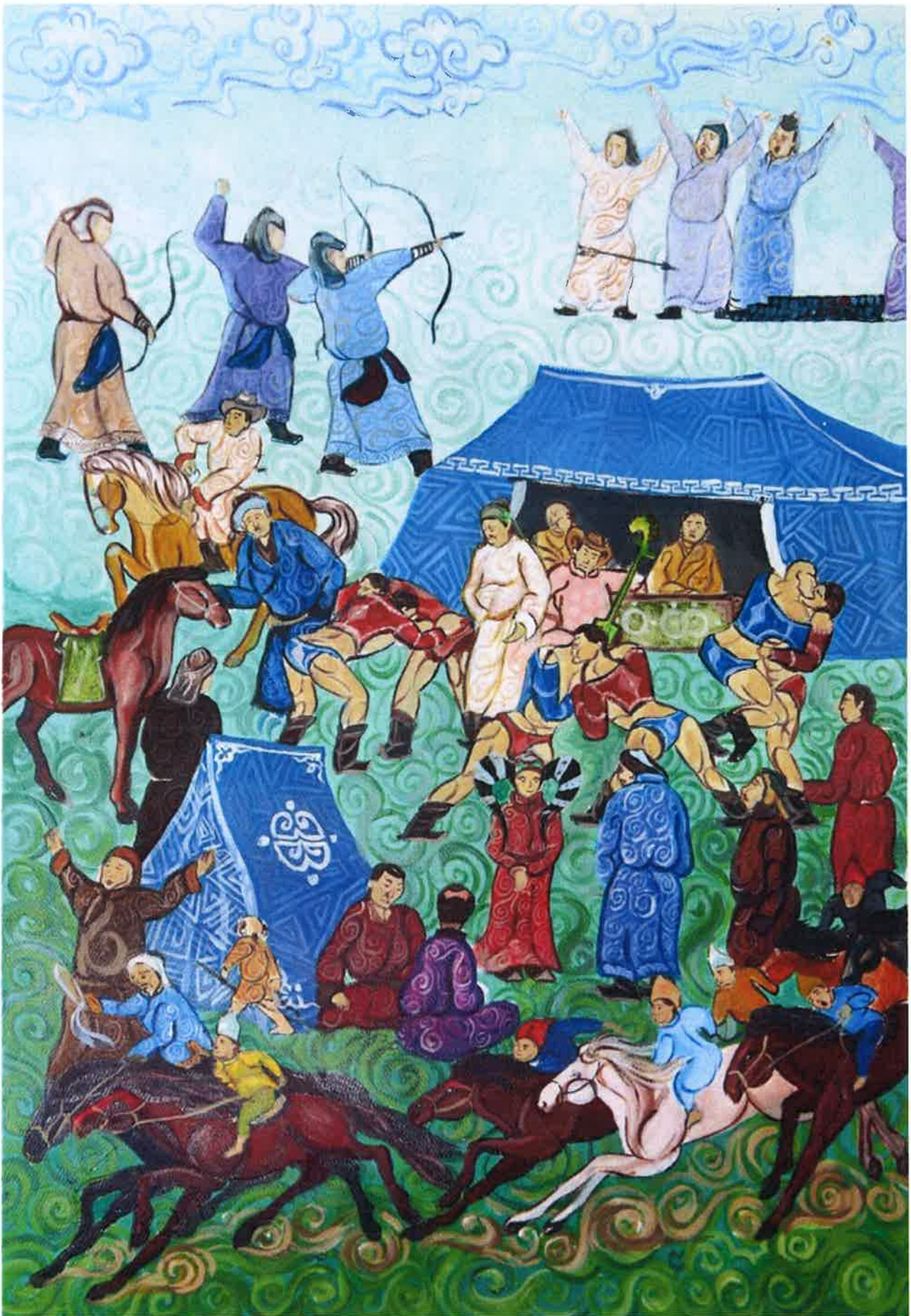
이창재 기자 news@thesegeye.com | 2019-11-26 03:41:48



▲ 최우수-양치식물 탐색-러시아 톰스크주 제2아동예술학교-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경북=세계타임즈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2019년도 심사결과, 러시아 톰스크주(州) 아동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 우수(인산 김었던 지역축제-몽골 옴스아이막 제1종합학교-바트수흐 첼드야요쉬)



또한 몽골 옅스주(州)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쳉드야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 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산 고급중학교 재학 가오 페이야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되어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의 의뢰로 심사에 참여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되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안동, 포항시 소재 문화원 등에 전시할 예정이며, 국내 중·고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동북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 ]

##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제7회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결과 발표

기사입력시간 : 2019/11/25 [21:39:00]

김영호 기자



▲ © 드림저널

[경북/드림저널] 경북도는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2019년도 심사결과, 러시아 톰스크주(州) 아동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몽골 읍스주(州)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쉐드야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산 고급중학교 재학 가오 페이야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되어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의 의뢰로 심사에 참여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되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안동, 포항시 소재 문화원 등에 전시할 예정이며, 국내 중·고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동북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 위클리 **오늘**

weeklytoday.com

HOME    전국    경북

##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제7회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결과 발표

주영선 기자    승인 2019.11.25 15:05



▲ 최우수-양치식물 탐색-러시아 톰스크주 제2아동예술학교-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경북 위클리오늘=주영선 기자]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2019년도 심사결과, 러시아 톰스크주 아동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몽골 옅스주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쉥드아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산 고급중학교 재학 가오 페이야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되어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의뢰로 심사에 참여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되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안동, 포항시 소재 문화원 등에 전시할 예정이며 국내 중·고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동북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선 기자 etc@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넷뉴스 인쇄하기

[인쇄하기] [닫기]



##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2019-11-25 오후 5:35:56]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2019년도 심사결과, 러시아 톰스크주(州) 아동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몽골 옅스주(州)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첩드아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산 고급중학교 재학 가오 페이야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되어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의 의뢰로 심사에 참여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되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안동, 포항시 소재 문화원 등에 전시할 예정이며, 국내 중·고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동북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제7회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결과 발표

기사입력시간 : 2019/11/25 [15:05:00]

양대영 기자 [kspa@kspnews.com](mailto:kspa@kspnews.com)



최우수-양치식물 탐색-러시아 톰스크주 제20아동예술학교-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케이에스피뉴스=양대영 기자 [kspa@kspnews.com](mailto:kspa@kspnews.com)]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2019년도 심사결과, 러시아 톰스크주 아동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몽골 읍스주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쉐드야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산 고급중학교 재학 가오 페이야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



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되어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의뢰로 심사에 참여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되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안동, 포항시 소재 문화원 등에 전시할 예정이며 국내 중·고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동북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1인1촌 뉴스시스  
**NEWSIS** 지방 > 대구/경북

##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 러시아 학생 최우수상

류상현 기자 | spring@newsis.com

등록 2019-11-25 17:33:39



[안동=뉴스시스] NEAR청소년그림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러시아 톰스크주 제2아동예술학교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학생의 '양치식물 탐색' 작품. (사진=경북도 제공) 2019.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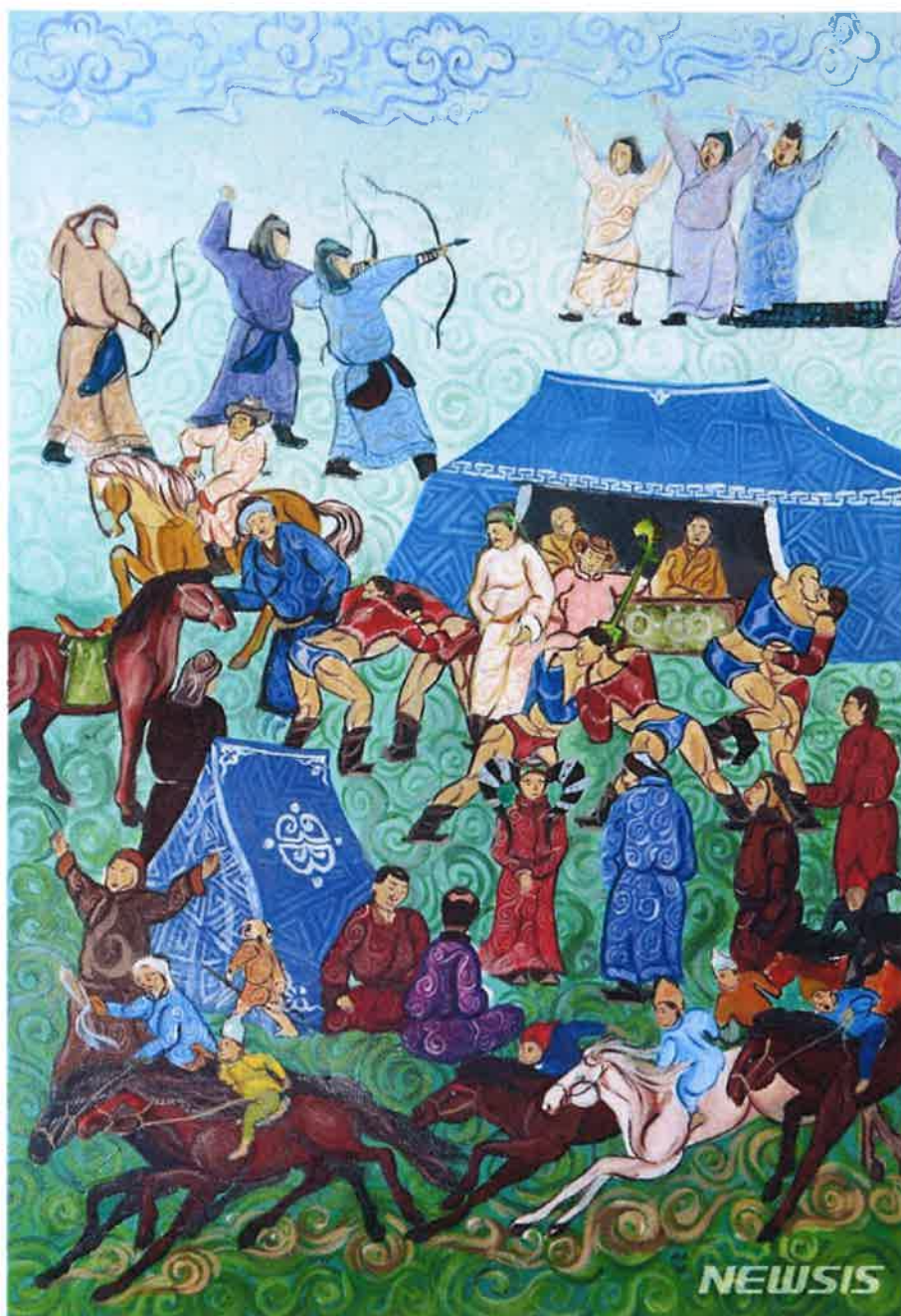
[안동=뉴스시스]류상현 기자 = 러시아 톰스크주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가 경북도의 'NEAR 청소년 그림 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경북도는 25일 올해의 이 행사에서 러시아 톰스크주 아동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몽골 읍스주 제1종합학교 재학 중인 바트수흐 쉐드야요쉬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산 고급중학교 재학 중인 가오 페이야오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모두 41개 작품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공모전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로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할 목적으로 2013년 시작됐다.

올해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돼 역대 최대 참가를 기록했다.



[안동=뉴시스] NEAR청소년그림포스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몽골 옅스아 이막 제1종합학교 바트수흐 쳉드아요쉬 학생의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 (사진=경북도 제공) 2019.11.25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NEAR 사무국 의뢰로 심사에 참여했다.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안동, 포항 문화원 등에 전시할 계획"이라며 "국내 중·고교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참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 같은 기회를 더 만들어 동북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레п

HOME > 사회

## 동북아지역 청소년, '그림 작품'으로 문화교류

☎ 이석만 기자 | Ⓞ 승인 2019.11.25 15:05

| '제7회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결과 발표



▲ 최우수-양치식물 탐색-러시아 톰스크주 제2아동예술학교-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뉴스레п]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2019년도 심사결과, 러시아 톰스크주 아동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키릴로바 예카테리나 양의 수채화 '양치식물 탐색'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몽골 읍스주 제1 종합학교 재학 바트수흐 첵드야요쉬 군의 아크릴화 '인상 깊었던 지역축제'가 우수상으로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닝샤류판산

고급중학교 재학 가오 페이야오 양의 아크릴화 '생명의 꽃'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1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공모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17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 고교생들의 작품 170점이 출품되어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이종길 사무국장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의 의뢰로 심사에 참여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한 이 공모전에는 올해 역대 최대인 170점이 응모되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안동, 포항시 소재 문화원 등에 전시할 예정이며 국내 중·고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동북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레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만 기자